

주문 거는 재난 보도

- 태풍 ‘매미’ 9시 뉴스 보도(지역방송 포함) 중심으로

노명자

여는 글

우리는 하루에도 수 많은 뉴스를 접한다. 뉴스를 통해 현실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시청자들의 현실인식 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텔레비전 뉴스가 갖는 현장성, 해독의 용이성 및 빠른 정보전달과 같은 특성은 어느 매체에 비해 텔레비전이 갖는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났을때마다 가장 발빠르게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송이다. 이번 태풍 역시, 방송 3사는 특집 방송으로 며칠동안 태풍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9월11일 밤부터 울릉도를 거쳐 지나간 13일 사이의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지난해 태풍 루사 관련 보도에 이어 올해에도 TV 뉴스는 태풍 피해상황 전달에만 급급했다.

태풍 ‘매미’가 휘몰아쳤다. 바람에 맥없이 부러진 나무들. 장난감 집처럼 망가진 사람들의 보금자리, 물 속에 휩쓸리고 산사태에 묻혀 죽은 사람들. 자연의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재해 앞에 우리는 모두 할말을 잃었다. 과연 자연만의 잘못일까. 자연을 위반한 우리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언제나 똑같은 재난 현장 중계 보도

9월12일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 남해안 특히 경남 사천을 지나 갈것이라고 예고한 시각, 방송 3사는 모두 첫 꼭지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마산 현장을 연결해 보도하였다.

다른 방송사에 비해 한시간 빠른 시간에 SBS는 ‘태풍 곧 상륙’에서 1시간뒤에 통영에 도착한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정전 사태와 지역별 강우량, 농경지 피해를 현황을 알려주었다. 평소보다 20분 일찍 시작한 MBC 역시 ‘마산 태풍 상륙’에서 마

산에 중계차 연결로 마산항에서 태풍 지나가는 현장을 보여주었다. 통영, 거제 등 경남의 피해 소식과 귀성객이 발이 묶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KBS도 ‘태풍 상륙’에서 마산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면서 경남지역의 피해 현황과 해일로 건물과 등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방송사들은 마산 연결을 시작으로 지역을 연결해 각 지역의 현황을 알려주었는데 대부분의 기자의 시작 멘트가 ‘비바람에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 라는 것을 강조했다. 보기도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 기자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어떤 기자도 그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적극적인 멘트를 하는 기자는 없었다. 대부분이 피해 현황을 중계식 보도로 알려주는데 그쳤다.

태풍이 마산을 관통하던 시각인 밤 9시, 현장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보도가 없었던 것이 더 큰 피해를 가져와 안타깝다. 12일 보도에서 MBC와 KBS 모두 ‘해일을 주의하라’ 는 것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필요하다’ 는 내용을 평소와 다르지 않게 간단히 알려주기만 했을뿐, 위험하니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는 소홀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그 심각성을 알려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그 시간은 추석을 보내고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태풍을 오롯이 맞아가면서 시내에 들어와서도 어떤 도로로 가야 안전한지 판단을 할 수가 없던 순간에도 기자들은 그 상황에 소홀했던 것이다. 특히 마산의 해안도로에 해일로 모든 건물이 잠겨 있을 그 현장의 현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피해 현장만을 보도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을수도 있었다.

근원적인 원인 분석 보도의 부재

태풍이 지나가고 그 피해는 짐작을 초월할 만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방송사 역시 하나같이 그 피해 상황을 알리는 특집 보도가 잇따랐다.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날인 13일, KBS는 헬기로 부산항의 모습과 폐허가 된 울산 앞바다, 김해 평야의 물에 잠긴 모습, 함안 축사가 물에 잠겨 돼지가 떠 있는 모습 등을 전해 주었다. MBC 역시 헬기로 컨테이너가 쓰러진 부산항 모습과 배들이 부서

지고 뒤엎긴 진해 앞바다, 낙동강 주변의 물에 잠긴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모습, 힘없이 쓰러진 송전탑 모습을 담아 보여주었다. SBS도 ‘태풍이 핏퐁 상치’ 에서 물에 잠긴 농경지와 경남 창녕, 물속에 잠긴 마을의 모습을 헬기를 타고 바라본 모습을 담아 보여주었다.

이어 사망자와 실종자의 인명 피해와 농경지 피해 면적, 피해액에 대한 통계보도가 이어졌다. 며칠동안의 특집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켜봐왔던 재난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 인명피해 인원과 농경지의 면적, 늘어난 피해액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 밖에 없었다.

간간히 지난해 수해로 쌓은 제방이 부실 공사로 무너졌다는 내용을 전하기는 했지만 근원적인 분석 취재와 대안 제시에 대한 기획보도는 어느 방송사도 찾아볼 수 없었다.

12일부터 15일까지 지역뉴스 없이 특집 뉴스가 이어졌는데, 피해가 컸던 경남지역(창원KBS, 마산MBC)의 보도 내용을 보면 13일 마산 해운동의 한 상가가 수몰되면서 사망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마산MBC는 중계차 연결로 구조 작업 중인 현장 전달과 함께 원목이 덮친 현장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자 발견이 된 시각에 정확히 내용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원목이 방치되도록 만든 책임자나 마산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밖에 없었던 매립지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다.

대피령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는 창원KBS가 13일 ‘대피령 안내려’ 와 14일 ‘대피령도 없었다’ 에서 지적을 했다. 마산MBC는 13일과 14일, ‘원목이 막았다’ 와 ‘홍기로 변한 원목’ 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원인과 책임성에 대한 분석 보다는 원목 때문에 입은 피해 현장만을 보도했고, 18일 원목 수사 착수가 들어가자 그때 겨우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조금 일찍 이번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원목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했다.

재난 보도때마다 모든 자체 지역뉴스는 없어지고, 중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송이 이뤄지고 있다. 한 도시에서 일어난 경우,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태풍의 경우, 그 경로에 따라 지역 상황이 모두 다르다. 이런 경우는 지역의 현황을 가장 아는 지역방송국 자체의 방송이 이뤄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분석한 밀착 취재로 지역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옳바르지 않을까.

태풍 피해 소식 특집 보도이후 15일 마산MBC가 먼저 지역뉴스를 시작했고 창원 KBS는 하루 뒤 16일부터 지역뉴스를 시작했다. 지역뉴스 보도 이후 지역의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MBC는 16일과 17일 이틀 연이어 ‘재난 부른 도시 설계’와 ‘매립이 해일 키웠다’에서 마산 매립지역의 해일 피해를 입은 이유를 분석해 보였고, KBS는 복구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학교와 기업체들 등 복구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집중보도해 주었다.

지역뉴스 역시 마산 소식이 가장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에 마산MBC는 18건(리포트)중에 12건이 마산소식이고, KBS는 15건 중에 반 정도인 6건 정도가 마산 소식으로 MBC는 거의 마산 소식에만 집중해 있다.

12일부터 19일까지 마산MBC는 총 26건 중에 반 이상인 14건이 마산지역 소식이었고, 나머지는 거제, 의령, 창녕, 밀양, 통영, 진해 지역의 소식을 전했다. KBS는 27건 중 12건이 마산소식이었고, 김해 함안과 비슷한 지역을 다뤘다. 지역방송이 경남지역의 모구 다뤄야 함에도 양사 모두 집중 피해를 입은 지역 중심으로만 보도를 해 다른 지역의 피해를 전해 주지 않아 지역 밀착 취재가 이뤄지지 않은듯해 아쉽다.

하지만 지역방송사 보도 역시 피해가 집중된곳의 보도로 많은 피해를 입고도 보도가 되지 않아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을 것이다.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의 방송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밀착 취재로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는지 고민해 볼 일이다.

방송 3사는 이번 태풍 ‘매미’가 최고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KBS는 ‘사라 기록 능가’에서 사라와 매미를 비교해 보여주면서 ‘최대’ 풍속, ‘최대’ 기록임을 거듭 강조했다. MBC는 ‘매미가 남긴 기록’에서 최대 강풍이었다며 59년의 ‘사라’보다 강력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SBS도 ‘사상 최대 풍속’에서 바람의 세기 실험을 통해 강풍의 정도를 보여주면서 사라의 기록을 깼다고 전했다.

‘최고’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태풍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안일한 대처 방안에 대한 냉철한 지적은 없었다. 정부도 언론도 우리 스스로도 왜 이처럼

어리석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책과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주지 않았다. 스스로 아픈 곳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놓치고 있는 것일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집을 잃어 당장 갈곳이 없는 사람들, 한끼의 밥도 챙겨 먹을 엄두도 나지 않은 현장을 보며 처참하다 못해 분노가 생길 지경이다. 누구를 원망할까.

태풍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같은 내용을 내보내고, 정보성 보도보다 구체적 자료나 근거 없이 태풍 상황을 전하는 스케치성 보도가 많았다. TV 뉴스는 태풍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합한 대처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울릉도의 경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는데도 KBS는 울릉도가 태풍 이동 경로에 있음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고 MBC와 SBS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야 이 소식을 다뤄 울릉도 지역의 피해예방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태풍이 지나가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나자 방송 3사는 앞 다투어 미국의 허리케인이 몰아쳤지만 평소의 안전대피 훈련과 철저한 준비로 피해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본의 안전 훈련과 재난에 대비해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도를 했다. 뉴스 보도 이외 특집 방송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뉴스 보도를 이어놓은 듯한 내용이었다. 특별히 분석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재난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재난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그것 역시 아주 잠깐이다. 그 아픔을 느끼고 있을 순간이다. 방송 역시 재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렇게 했어야 했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잘 하고 있어’ 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보도를 한다.

피해 입은 지역의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다 보니, 며칠동안 같은 장면이 계속 보여줘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였다. 인터뷰 내용 역시 같은 사람을 몇번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삶의 문제보다 집 잃고 갈곳 없는 처참한 모습을 동정하게 하는 감상적이 접근이 많은 많았다.

‘괜찮아 괜찮아’ 주문 걸고 ‘도와줘 도와줘’ 손 내밀기

자연재해 앞에 집을 잃은 사람들은 지난해 방과제가 무너지자 슬픔이 분노로 변했다. 하지만 방송은 여전히 ‘괜찮아, 괜찮아’ 어쩔수 없었어 ‘주문을 걸고 있었다. 어쩔수 없는 자연 재해 앞에 도리가 없었다고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태풍이 지나간 14일부터 방송사들은 복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를 시작했다. 방송사는 ‘시름뒀고...다시’ ‘폐허 딛고 다시’ ‘허탈 딛고 구슬땀’ 등의 제목으로 복구 현장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는 현장을 보도했다.

큰 재난이 닥쳤을때의 방송 순서는 정해져 있다. 재난 현장을 헤집고 다니며 중계식 보도를 한 후, 복구 소식이 전해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소식을 알리고, 방송사들은 하나같이 모금을 시작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 주문을 걸기 시작한다. ‘괜찮아, 괜찮아 이정도쯤이야... 우리는 함께 이겨낼수 있어’ 라고 연일 국민들의 귀에 속삭인다.

삼풍백화점 사고때도,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우선 머리속에 떠오르는 큰 재난 사고가 날때마다 같은 순서였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방송 순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방송의 주문에 걸려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성금을 모으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앞장서 나선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을 틈도 없이 모두 방송사들의 매일 매일 귀에 속삭이는 마술이 걸리고 만 것이다.

이런 방송 순서에 시청자들도 어느새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찔하다. 우리는 왜 그 주문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예방차원의 미래 지향적인 과학적인 분석보도 이뤄져야

피해가 그렇게 컸는데 그 어떤 방송사도 ‘왜?’ 라는 질문에는 소홀했다. 시민들은 ‘왜?’라고 끊임없이 묻는데, 방송사들은 그 물음을 뒤로한채 여전히 피해 상황 보도가 끝난후에는 수해 복구 현장 보도에만 집중했다.

방송3사는 태풍 예상 경로에 맞춰 피해요령,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예방적 보도보다 태풍 피해보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예방적 보도는 크게 부족했다.

시민들에게 시급하게 알려야 할 대피의 필요성이나 예방적인 내용보다는 사고 현장을 전하는 중계 형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어느 지역이 무슨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이 얼마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만 집중되었다. 태풍이 지나가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며 안전한 대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내용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보도를 했다.

현장에서라도 대피령에 대한 보도와 긴급함을 알렸다면 조금의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우리의 방송 보도 역시 재난에 얼마나 준비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언론이 각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난 예방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하듯이 스스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도 새로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수해 복구비로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 허술한 복구로 1년에 한번씩 터지는 제방, 개발주의에 도시는 제 기능을 잃어 가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번 재난 보도에서도 아쉬웠던 것은 재난을 방지하는 도시의 시설 시스템을 갖출 때 드는 비용과 해마다 복구에 투자해야하는 비용을 비교분석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내놓은 기획보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두 단발성 기사로 현장보도에 그쳤다.

크고 작은 재난이 있을때마다 우리의 방송들은 현장 중계에 앞장서 나선다, 백화점 붕괴때도, 대구 지하철 참사때도 밤 낮을 잊고 생중계 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사건이 어느정도 마무리 될쯤이면 보도 양은 현저히 줄어든다. 그리고 며칠후 언제 그랬냐는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될만큼 우리 앞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재난보도에 이어 외국의 몇가지 사례를 보도하고 사고 났을 당시의 몇분의 일이라도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한다면 다음번에 또다시 같은 장면을 봐야 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닫는 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언제 아물지 모르는 상처로 남았다. 다시 이런 되풀이를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태풍 피해 보도에서 엄청나게 불어나는 피해액만을 알려주었다. 중앙, 지역 방송 모두 정확한 분석으로 재발 예방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내년 이맘때쯤 또 똑같은 피해 현장을 다시 봐야 할까봐 벌써 두렵다.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따져보는 것이 미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마산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개발에만 눈이 어두워 인간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자연을 거스리지 않은 신중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의 태풍보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적되고 대안을 모색해 재난의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부나 방송사나 우리 모두 조금 냉철해지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현명함으로 재난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시는 똑같은 재해 현장을 똑같은 아픔을 똑같은 자원봉사를 똑같은 성금을 내고 싶지 않다.